

광주 제조업체 10곳중 6곳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피해”

광주상의 130개사 조사...52% “에너지·원자재 조달 비용 증가”
34.5% “환율 변동·결제 지연” 33% “원자재 수급 안돼 생산 차질”
71.5% “피해 더 늘어날 것”...75% “대비 필요하나 대응책 없어”

광주지역 기업 10곳 중 6곳이 중동 긴장상태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위험요인으로 인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고,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로 물류비 역시 급증하고 있다. 당장 삼성전자 광주공장도 물류비 증가 부담으로 북미에서 판매되는 물량의 현지 생산을 고려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지역 산업의 기동 역활

을 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이 중국산(産) 제품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는 등 다양한 대외적인 요인이 지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13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기업 영향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4.6%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실적 저하 등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기업은 (34.6%), '일부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기업은 0.8%에 불과했다. 피해를 호소한 기업들은 지정학적 위험요소가 '에너지·원자재 조달비용 증가' (52.4%)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뒤이어 '환율 변동·결제 지연 등 금융 리스크' 피해를 호소한 기업이 34.5%였다. 이밖에 '원자재 수급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 (33.3%), '해외시장 접근 제한 및 매출 감소' (25.0%), '재고관리 차질 및 물류비 증가' (23.8%), '현지 사업 중단 및 투자 감소' (8.3%) 등이 불편함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추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기업 경영상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 기업 71.5%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26.9%, '지금보다는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영상 애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 75.4%는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비가 필요하나 아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실제 대응현황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43.8%가 '별다른 운영상의 변화는 없었다'고 답했으며, 기업 운영에 변화가 있었던 기업들은 '기존 수출시장의 신규 대체시장 발굴 (40.8%)', '해외조달 부품·소재의 국내조달 전환 (20.0%)', '대외 지정학 리스크 대응조직 신설 (5.4%)', '해외 생산시설 축소 또는 철수

(3.1%)' 순으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정학 위험요인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경영상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65.4%가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강화를 선택했다. 뒤이어 '대체시장 개척 및 사업 다각화' (39.2%), '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 조달 강화' (29.2%), '환차손 등 금융리스크 관리' (17.7%), '글로벌 사업 축소' (2.3%) 순으로 선택 비율이 높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지속 및 그 여파에 따른 경영비용 상승, 생산 차질 등으로 지역 제조업체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 기업들이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확대, 시장개척 지원 등 정부·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보해양조 광주식품대전 참가 홍보 부스 운영 10월 17~20일 DJ센터...완도 다시마 협업 제품 '다시, 마주' 홍보



주류 전문기업 보해양조가 20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식품대전에 참가해 완도 특산물인 다시마를 이용해 로코노미의 대표 제품으로 인정받은 '다시, 마주'를 소개한다. <사진> 이번 행사에서 보해는 완도금일수협과 함께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바다를 통해 다시 마주한 우리'라는 주제로 방문객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지역 상생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다시, 마주'는 보해양조와 완도금일수협의 협업으로 탄생한 세계 최초 다시마 소주로, 다시마 특유의 깊고 부드러운 맛을 소주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보해는 그동안 완도 지역에서 주로 판매되던 제품을 광주식품대전을 통해 보다 넓은 지역 소비자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보해와 완도금일수협의 공동 홍보부스는 1층 B홀 행사장 입구 지역대표기업 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부스 이벤트에서는 업사이클링 텀블러 등 다양한 굿즈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시음·시식 공간에서는 '다시, 마주'와 함께 완도금일수협이 준비한 청정 바다 완도산 전복을 무료로 맛볼 수 있다. 또 QR 코드를 이용해 신선한 해산물을 현장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갖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동수 광주세관장, 식품업체 찾아 수출 협의

FTA 혜택 등 적극 지원 약속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이 17일 전북 김제의 식품제조 전문기업 ㈜한우물을 방문해 수출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이번 방문은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찾아가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우물은 지난 2006년 농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소스류, 방통제품류 등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쌀 가공식품기업이다.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을 획득해 우수농산물 관리시설로 지정되었으며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냉동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 코스트코와 거래함으로써 2023년 기준 65억원이던 수출 실적이 올해 10월 기준 302억원으로 증가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이날 식품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을 대폭 증대한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원산지인 중수출자 인증 등을 통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올 겨울 무안공항서 대만·동남아 여행 떠나볼까

진에어 나리타·타이베이 신규취항 제주항공도 방콕 등 4개 노선 취항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무안공항을 통한 일본, 대만, 동남아 등 국제선 노선 확대에 나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올겨울 여행 선택지가 넓어졌다.

진에어는 오는 12월 2일부터 무안발 일본 나리타행, 대만 타이베이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 무안~나리타 노선은 오는 12월 2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운항되며, 오후 7시에 무안에서 출발한다. 무안~타이베이 노선 역시 같은 기간동안 운항되고, 밤 11시 30분 무안에서 출발한다. 두 노선 모두 매일 1회, 주 7회 일정으로 운항한다.

돌아오는 항공편은 나리타 공항에서 오후 8시, 타이베이 공항에서는 현지 시각 새벽 1시 40분에 출발하는 일정이다. 신규 취항하는 2개 노선에는 189석 규모의 B737 항공기가 투입되며, 탑승객에게는 무료 위탁 수하물 15kg이 기본 제공된다. 진에어는 신규 취항을 기념해 오는 11월 6일까지 무안발 국제선 예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



진에어는 오는 12월 2일부터 무안발 일본 나리타행, 대만 타이베이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 신규 취항하는 2개 노선에 투입되는 B737 항공기. <진에어 제공>

대 15% 항공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진에어는 신규 노선으로 매일 오전 8시 25분 무안에서 출발하는 무안~오사카 노선 취항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12월 초 나리타, 타이베이 노선과 함께 취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항공도 오는 12월 8일부터 무안발 4개 노선(나가사키, 타이베이, 방콕, 코타키나발루)을 신규 취항할 예정이다. 4개 노선 모두 오는 2025년 3월 29일까지 운항된다.

무안-나가사키는 매주 화·목·토요일 오전 8시 45분, 무안-타이베이는 매주 화·토요일 오후 1시 15분, 무안-방콕은 매주 화·목·토·일요일 오후 8시 50분, 무안-코타키나발루는 매주 화·금요일 오후 5시 50분 무안에서 출발한다.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운항하던 무안-제주노선은 동절기 운항 준비 및 항공기 정비 등을 위해 11월 한 달 간 운항을 중지하고 12월 초 재개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hang@kwangju.co.kr

이마트 광주점 18~24일 '가을 와인장터' 행사 진행

이마트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연간 두번째 열리는 '가을 와인장터'와 '와인 워크'를 함께 진행한다. 이번 와인장터는 '연말 파티 준비'를 테마로, 연말 모임에서 수요가 높은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 등을 선보인다. 대표 와인으로는 프리미엄급 샴페인인 '떼팡제 리저브 브뤼(750ml)'와 '앙드레 끌루에 샴파뉴 조키(750ml)'를 각각 행사가 5만 9800원, 6만 9800원에 판매한다. 가성비 샴페인과 스파클링 와인으로는 '샴파뉴 샤를르 드 까지노브 브뤼(750ml)', '도넨 생 미셀 브뤼 NV(750ml)', '보히가스 리저브까바 브뤼(750ml)'은 행사카드(이마트·삼성·KB국민·신한·현대·롯데·IBK기업) 전액 결제 시 2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장윤영 기자 zhang@

개원 25주년 광주TP 30~31일 성과확산대회

시민·기업·대학·기관 성과 공유

(재)광주테크노파크(이하 광주TP)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광주TP 본부동 및 과학기술동에서 '광주테크노파크 2024 성과확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TP 개원 25주년을 맞이해 관련부처를 비롯 지자체 및 기업, 대학, 유관기관, 시민들에게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성과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산업육성과 기업지원분야에서 광주TP가 이룬 성과를 전시하고, 지역산업의 현재와 광주 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막식, 포럼, 전시·체험, 세미나 등으로 운영된다. 첫날 오전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하 지

자체 관계자와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자·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의 인공지능(AI) 대표도시를 설계한 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광주 AI와 반도체산업의 미래'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 '방위산업 핵심기술 및 정책 동향', '휴머노이드로봇 산업 동향과 정책 등 미래 기술과 산업 동향'을 주제로 포럼이 계속된다. 이틀간 진행되는 전시·체험은 기업별 전시 제품 및 홍보, 기업별 실증제품 체험 및 판매 등 지역산업육성 성과공유와 체험을 주제로 진행, 일반인들도 지역의 발전산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 광주 분산에너지 활성화, UAM 산업 동향, 코스메디케어 유효성 평가기술, 차매 예측 진단치료 사업화 사례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태국게임쇼' 참가

전남 5개 게임 기업 공동관 운영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전남지역 게임업체들의 동남아 게임 시장 진출을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태국 방콕 퀸시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태국게임쇼 2024'에 참가한다. 태국게임쇼 2024(Thailand Game Show 2024)는 매년 18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다. 글로벌 게임사들의 신작발표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리며 국내외 게임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다. 이번 공동관 운영은 '2024 게임콘텐츠 글로벌 시장진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남의 우수한 게임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지 퍼블리셔와의 협력 기회를 통해 수익 창출과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참가했다. 이번 전남공동관에는 전남지역 5개 게임 기업이 참가한다. 참가 기업으로는 ▲㈜에니뉴 ▲㈜슈퍼

플렉스 ▲주식회사 팜 ▲관돌 ▲㈜니트로스 등 총 5개 기업으로 각 기업들은 게임, 로고라이프,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공표, 로고라이프, 행사 기간 동안 공동관에서는 B2C 전시와 함께 B2B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가 기업의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와 함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미니 이벤트 등 부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내 게임 기업의 홍보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참가 기업들이 현지 퍼블리셔와 바이어와의 투자 상담을 통해 글로벌 판로 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비즈니스 테이블 비롯한 태국 내 주요 퍼블리셔 및 게임개발사와의 협력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용 원장은 "이번 태국게임쇼 참가를 통해 전남지역 게임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특히 퍼블리셔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일자리정보망 7년만에 새단장 서비스

전남일자리정보망이 업그레이드돼 도민 서비스를 운영한다. 7년 만에 새롭게 단장, 운영에 들어간 일자리정보망은 회원 등록, 일자리 검색, 구직 신청,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는 처리 방식으로 구축됐다. 회원들은 연령층, 거주 지역별로 자동 설정하고 기본적인 맞춤형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원하는 근무지역, 희망직종, 경력, 학력, 고용 형태, 희망 임금 등 맞춤 검색 기능을 통해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시간 제약 없이 즉시 상담 가능한 인공지능(AI) 챗봇을 클릭, 질문하면 대화 형식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보망에서 오프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일자리종합센터 상담사에게 구체적인 직업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민간일자리를 관리하는 고용24, 사람인, 잡코리아와 공공일자리를 관리하는 나라일터 등과 연계해 민간·공공기관의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한 최신 정보도 제공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전남일자리정보망에 접속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김지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09.30 (-1.06)
↓ 코스닥	765.06 (-0.73)
↑ 금리(국고채 3년)	2.807 (+0.017)
↑ 환율(USD)	1370.00 (+7.40)